

광주일보 65년·호남예술제 62년 100년 신문을 향한 힘찬 도약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62회 호남예술제가 1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무용 부문 경연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한국창작무용에 참가한 김중미(광주예고 1)양의 65가지의 독무모습을 다중촬영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文이나...安이나... 고심하는 표심 호남의 선택이 새 대한민국 연다

Ⓟ '선택 2017' 대선 D-19

제19대 '5·9 장미 대선'을 앞두고 온 국민이 호남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호남의 선택이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진 조기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선거마다 호남이 야권의 심장 역할을 하며 전국적으로 대선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도 호남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 지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호남은 국민의 당 바람의 진원지 역할을 하며 정치권의 변화를 주도했다. 호남의 맹주를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원내 3당 체제라는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온 원동력

우리사회 해묵은 적폐 청산 세대·지역·이념 갈등 해소 능력있는 대통령 선출해야

이 됐다.

그러나 한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요한 숙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야권 후보 한 명이 결정되면 본선에서 '올인' 했던 호남 민심은 이번 대선에선 야권 후보 중 한 명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선택의 주요점은 향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지도자를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국정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임기 중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때문이라도 우리 사회의 해묵은 적폐 청산과 세대·지역·이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지역 유권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남 민심은 10년간 이어진 보수 정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고, 호남의 미래 경제발전의 견인할 수 있는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중반까지 촛불 민심으로 표출된 '시대정신'과 호남의 미래를 담보하는 후보에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후보 등록을 전후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얼얼히 뒤져라하는 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 출신 대선 후보의 부재와 대구·경북(TK) 대선 후보의 약세로 인해 이전까지 참여하게 대립했던 영호남 갈등 구도가 희석되는 등 '망국병' 지역주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이제 호남 민심은 맹목적인 지역 후보 지지자 아닌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성숙한 유권자 의식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일빌딩 10층서 탄흔 170여개 발견 UH-1 헬기, 금남로 상공에서 M60 기관총 좌우 흔들며 난사

국과수, 2차 감정결과 발표 시민군 카빈 탄흔도 첫 확인

5·18 당시 시위 군중 진압을 위해 출동한 계엄군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내부를 향해 헬기에 거치된 기관총을 좌우로 흔들며 난사(기총소사)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통해 드러났다. <관련기사 21면>

국과수는 옛 전남도청과 이웃한 전일빌딩 건물 내부 총탄 흔적 150여점에 대해 올 1월 법안감정서(1차)를 통해 "정지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유력하다"면서도 기총소사 여부와 무기 종류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19일 "전일빌딩 10층 내부 총탄흔적은 헬기에 거치된 기관총 사격에 의해 생성된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전일빌딩 총탄흔적 법안감정(2차)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남로 상공에 헬기가 호버링(hovering·정지비행) 상태로 떠 있었고, 탑승한 군인들이 거치돼 있던 기관총을 좌우로 돌리면서 사격했다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맞다"면서 "10층 내부에서 확인된 부채꼴 모양의 탄흔 분포를 보면, 소총병이 총기를 들고 탄창을 갈아 끼우며



1980년 5월 금남로에 출동한 UH-1 헬기

짜서는 생길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총탄흔적 분석 결과는 헬기 기총소사를 가리키나 조사 과정에서 물증(탄환·총알)을 발견하지 못해 감정서(2차)에는 기총소사를 명확히 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과수가 낸 1, 2차 감정서와 김 실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일빌딩 10층 건물 내부에서 확인된 170여점의 탄흔은 UH-1 헬기 양쪽 문에 거치된 M 60 기관총에 의한 난사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국과수는 광주시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28일부터 사흘간 전일빌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통해 건물 10층 내부에서 기존에 확인됐던 탄흔 150여개 외에 27개가 천장 내부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건물 후면에서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진압작전에 나섰던 공수부대와 교전을 벌였던 시민군들이 쏜 카빈 소총 탄흔도 처음 확인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창사 65주년 특집 28면 발행



- | | |
|------------------------|-------------------------|
| 문재인·안철수 후보 인터뷰 ▶2·3면 | 운동주 탄생 100년 '프로로그' ▶11면 |
| 대선주자 탐구·SWOT 분석 ▶4~6면 | 정찬주의 '그리스인 조르바' ▶12면 |
| 대선 '양강' 사령탑 인터뷰 ▶7면 | 토요일은 광주가 좋다 ▶13면 |
| 장하준 인터뷰...한국경제의 과제 ▶8면 | 경제특집 ▶15~20면 |
| 광주일보 정론직필 65년 ▶10면 | 광주일보 애독자 배운수씨 ▶21면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중서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최고 소매전문은행

문의전화 : 1600-4000/1588-3388

홈페이지(인터넷뱅킹) : www.kjbank.com